

성도의 교제 |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 환영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팀'과 함께 환영실에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알림

1.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알리고 전파 합시다.
2.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3. 캠퍼스 여름 학기 사역 시작: 매주 화요일 (2 팀), 토요일 (1 팀)
4. 코로나 19의 온타리오 정부 시책에(Step One) 준하여 예배 인원은 33 명(MBC 수용 인원의 15%)으로 제한됩니다.
5. 목회자 칼럼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79 회)
6. 매주 목요일은 전도와 심방의 날입니다.
7. 지속적인 333 중보기도: 밀톤 지역의 복음화와 교회 부흥, 코로나 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아이티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청년부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원주민 여름 선교를 위해서, 새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8. 목회자 소식: 정창송 목사님의 장녀 정수하 & 강상용 형제의 결혼식(6/12)에 기도와 여러 모양으로 축복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제 41 문: 이 도덕상의 법칙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답: 이 도덕상의 법칙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¹

1) 신 4:13; 마 19:17-19

| 주일예배 | 목요일예배 | 교회 학교 | 청년부 |
|---|----------------------------------|------------------------|---------------------------|
| 오전 9:00 (교회) 오후 12:30 (온라인) | 저녁 7:00 (교회) (수)저녁 7:00 (온라인) | (주) 오전 11:30 (Zoom) | (화/수 격주) 오후 8:00(Zoom) |
| ☎ 647-850-9191 Cell: 647-208-9191 www.miltonkpc.com // pastorjcsong@hotmail.com | | | |
| 섬기는 분들 | | 담임 목사: 정창송, 교육목사: 김윤규 | |

제 21 - 24 호

2021.06.13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밀톤 한인 장로 교회

Milton Korean Presbyterian Church

900 Nipissing Road, Milton, ON. L9T 4Z9 www.miltonkpc.com

| 주일 예배 | 오전 9:00 | 예배인도: 김윤규 목사 |
|--|-------------------------------|--------------|
| 송 영 | (전주) | 반주자 |
| 예배의 기원 | | 인도자 |
| *찬 송 | 10 장 (통 34) | 다함께 |
| *교독문 | 26. 시편 50 편/314 장 1 절 (통 511) | 다함께 |
|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함께 |
| 봉헌 및 기도 | 633 장 | 김윤규 목사 |
| 교회 소식 | | 인도자 |
| 찬양의 시간 | | 다함께 |
| *성경 봉독 | 시편 42:6-11 | 인도자 |
| 설 교 | 낙심 가운데에서 드리는 기도의 힘 | 김윤규 목사 |
| The power of prayer during discouragement | | |
| *찬 송 | 364 장 (통 482) | 다함께 |
| *축 도 | | 김윤규 목사 |

*는 일어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전도와 선교하는 공동체

미래의 청소년들과 장년들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교육하는 공동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공동체

가정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 (요 6:35)

복음을 알리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밀톤 한인 장로 교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보다 (시 42:8)

고라 자손의 교훈시인 시편 42-43 편은 삼연(聯)으로 되어져 있는 하나의 시입니다. 시인은 본문 6-7 절에서 자신의 영혼이 낙심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단 강이 시작되는 땅에서, 헤르몬 산에서, 미살 산에서, 내가 주를 기억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42:6).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본문 6 절에서 요단 강이 언급되어지는데, 시인은 요단 강이 시작되어지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낙심가운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단 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시편의 2 권을 출애굽의 과정과 연결시켜 살펴보고 있는데, 시인은 여호수아 3 장에서 요단 강을 건너는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 바닥이 요단 강에 닿자 물이 그치는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에 돌 12 개를 세우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또한, 신명기 3 장 1-11 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산 왕 옥을 헤르몬 산에서 물리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산 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신명기 3 장 2 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헤르몬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바산 왕 옥도 물리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시인은 낙심 가운데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42 편을 통하여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본문 6 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깊은 낙심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낙심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는 “주저 않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심정을 본문 6 절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왜 낙심으로 마음 속에서 주저 않게 되어지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낙심의 원인을 하나로 설명하는 것은 정신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부분을 언급할 때에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낙심의 이유를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 말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낙심의 이유는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낙심으로 목표를 상실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새로운 희망도 찾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모두 잃고 깊은 구렁이에 빠져 있을 때에,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엘리바스의 두번째 말을 듣고 난 후에 욥기 17 장 15-16 절에서 희망이 없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욥기 38-41 장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욥은 욥기 42 장 2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 42:2)

어떻게 욥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욥 42: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 가운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것이 낙심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시편 25 편 3 절에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본문 7 절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고통을 느껴본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살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시인은 낙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모세 또한 고통 가운데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신명기 8 장 2 절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40 년 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도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00 만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서 가나안까지 3 달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40 년의 시간을 거쳐서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 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모세를 통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겸손과 순종의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은 낙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겸손과 순종을 배워야 합니까? 그 이유는 겸손과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신실 하시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에게 세가지 복을 주시는데, 이것은 언약 백성들의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언제 하나님을 잊게 되어집니까? 신명기 8 장 12-14 절의 말씀을 보면,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입니다. 물질적인 평온감은 부작용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기억 상실증은 스스로를 높이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데, 세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기도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상처받고 낙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느끼는 고통이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 10 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뼈를 찌르는 칼” 같은 고통 가운데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상처의 말을 기억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기 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상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치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들은 낙심 가운데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원수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본문 11 절에서 후렴구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 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들이 삶에 지쳐 힘들어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이 우리들에게 위로와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